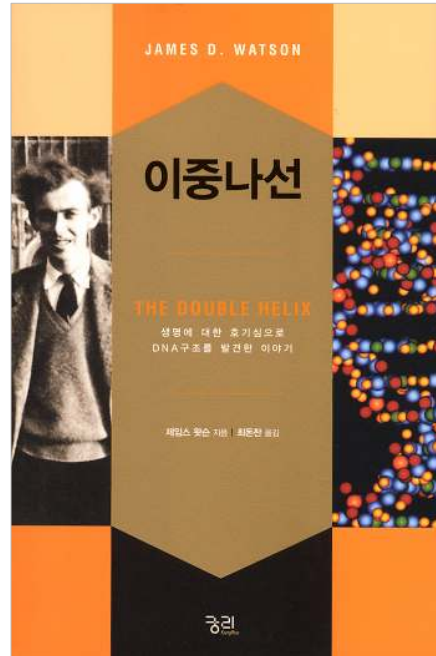


# 이중나선

생명에 대한 호기심으로  
DNA구조를 발견한 이야기

제임스 왓슨 지음  
최돈찬 옮김

자연과학 | 256쪽 | 신국판변형 | 10,000원 |  
ISBN 89-5820-067-7(03470)  
2006년 7월 10일 출간



## <공리하는 과학> 시리즈 출간의 의미!

본격적인 과학교양서의 출간은 1973년 전과과학사의 <현대과학신서> 이래 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과학도서 출판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은 성장을 거듭해왔고,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이후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대중과학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출판의 중요한 영역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그렇지만 과학교양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출간이 이루어지기보다 일부 분야나 인기 있는 저자들에게 편중되어 소개되는 등의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다. 특히 과학 명저에 해당하는 중요한 과학서들은 번역의 어려움과 상업성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거의 독자들에게 소개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과학교양서 출간을 둘러싸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체계적인 기획력을 갖춘 전문 출판사들이 생겨났고, 아직까지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과학고전을 번역할 수 있는 인적 풀도 상대적으로 넓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다 체계적인 과학고전에 대한 폭넓은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일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획에 의한 과학 명저의 소개는 과학교양서 출판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새로운 관점의, 젊은 번역자에 의한, 21세기 독자를 위한 '공리하는 과학' 시리즈를 선보이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책으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과학고전, 『이중나선』을 시작으로 울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슈뢰딩거의 『생명이란 무엇인가?』, 자크 모노의 『우연과 필연』 등이 이미 널리 알려진 고전을 비롯해서,

앨런 그로스의 『과학자의 글쓰기에 대하여』, 로저 트리거의 『인간 본성에 대하여』 등 새롭게 발굴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다채롭다.

저자와의 직접 계약에 의한 정식 출판!

저자의 한국어판 서문 수록!

20세기 과학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 평가받는 DNA 구조를 발견하는 과정과 인물들, 특히 과학자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소 직설적이고 유머스럽게 써내려간 『이중나선』은 과학자들의 세계를 막연하게만 이해해왔던 독자들에게 쓸쓸한 재미를 줄 수 있는 책이다. 이는 단지 과학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비 과학도 혹은 이 분야의 문외한이 읽어도 과학자라는 인물의 삶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애송이 미국인 과학도가 영국 케임브리지에 유학하면서, 과학자들이 풀지 못한 숙제였던 DNA 구조의 모형을 만들고 설명해내는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DNA 구조를 밝혀내는 과정을 둘러싸고 동료인 프랜시스 크릭, 라이너스 폴링, 모리스 윌킨스, 로잘린드 프랭클린 등 쟁쟁한 경쟁자들이 포진한 상황에서, 왓슨은 과학적 업적을 서로 먼저 이루기 위해 펼치는 치열한 경쟁과 갈등, 속임수, 실패와 좌절, 우연히 떠오른 영감 등이 잘 묘사하고 있다.

그동안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지만, 오래도록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책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중나선』이 지금까지 독자들의 사랑을 꾸준히 얻는 스테디셀러가 된 까닭은 장차 과학자가 되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과학자와 그들의 연구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한 자신들이 활동하게 될 과학자 사회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길잡이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과학자 세계의 실패와 좌절을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그려내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과학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매력을 가진 21세기 新고전, 『이중나선』!

또한 저자 왓슨이 크릭이나 폴링, 윌킨스 등 다른 과학자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그가 글을 잘 쓴다는 사실이다. 외국의 과학자들 중에는 글을 잘 쓰는 이들이 많다. 게다가 글을 잘 쓰는 과학자가 성공하는 비율이 높다. 많은 물리학자들 중 우리가 특별히 아인슈타인과 파인만을 기억하는 까닭이 오로지 그들의 연구 업적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건너온 약간 꼴렁꼴렁해 보이는 이 젊은 학자보다 누가 봐도 화학구조 등에 훨씬 더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던 크릭이 직접적인 연구는 더 많이 했다. 그런데도 왓슨이 왜 더 각광받느냐에 대한 오랜 논쟁 끝에 내린 결론은 약간 뜻밖이었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왓슨이 쓴 『이중나선』이라는 작은 책의 힘 덕분이라는 것이다.

『이중나선』은 과학자 왓슨과 인간 왓슨을 고르게 조명한다. 너무 발가벗는 것은 아닐까 하여 오히려 읽는 사람을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거침없는 솔직함은 결코 과학자 왓슨을 깎아내리지 않는다. 인간 왓슨의 멋스러움이 살아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신기한 것은 인간 왓슨이 살아남에 따라 과학자 왓슨의 주가도 덩달아 올랐다는 사실이다. 과학도 사람이 하는 일인 것이다.

DNA의 이중나선 구조가 밝혀진 지 어언 반세기가 흘렀다. 이제 DNA는 우리 삶의 일상용어가 되었고 유전자과학은 우리의 몸은 물론 정신도 속속들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사뭇 과격해진 정책과 발언을 일삼다 결국 사임하게 된 로렌스 서머즈 하버드 대학 총장은 모든 학문이 다 유전자를 연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지나친 감이 없지 않지만 유전자에 대해 알지 못한 채 21세기를 살아가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흥미진진한 유전자의 세계로 뛰어들고 싶다면 모름지기 이 책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제임스 왓슨

1928년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1947년 시카고대학교를 졸업하고, 1950년 인디애나 대학에서 유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51년 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캐번디시 연구소에 박사후 연구원으로 갔다가, 프랜시스 크릭을 만난다. 왓슨은 크릭과 함께 DNA 구조를 밝히는 논문을 1953년 《네이처》에 발표했으며, 1962년 그 공로를 인정받아 크릭, 모리스 윌킨스와 함께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1976년까지 캘리포니아공과대학교 생물학 주임 연구원과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1968년 이후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 소장으로 박테리아 바이러스, 분자유전학, 그리고 단백질 합성에 관한 연구를 주도했다. 저서로는 『유전자, 여자, 가모브』 『DNA를 향한 열정』 『유전자의 분자생물학』 등이 있다.

## 최돈찬

서울대학교 동물학과와 동 대학원, 델라웨어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와이오밍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자연과학종합연구소에서 박사후 연수를 거쳤다. 현재 용인대학교 환경생명학부 생명과학 전공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인간이 되는가』 『세포전쟁』 (공역) 『유전학의 탄생과 멘델』 『척추동물의 비교해부학』 (공역) 『현대 생물학 개론』 등이 있다.

## 차례

한국어판 서문	5
추천사(최재천)	6
로렌스 브래그 경의 서문	13
머리말	17
이중나선	21
저자가 막스 델브뤼크에게 썼던 편지 모음	239
찾아보기	247
옮긴이의 말	253